

광주 미래차·고흥 우주 산단 조성 빨라진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광주 방문
“산단 조성 최대한 속도 낼 것”
복합소방물 도로망 개선 등
광주시 현안 사업도 적극 반영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광주 미래차 산단과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조성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 미래차 산단은 인근 빛그린 산단 등과 연계해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돋움 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광주의 미래차 산업단지, 고흥의 우주발사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하는 만큼 국토부 등 관련 각 중앙부처는 산단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오는 31일 국토부와 산업부 등 규제·예산 권한을 갖는 중앙부처들과 광주시, 기업,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 관련 기업이 참여해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행정 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음 달 중에는 사업 시행자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전남도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의 후 다음달 중 사업 시행자를 빠르게 선정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참여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줄이고, 산단 부지의 대부분인 그린벨트 해제 등도 관계부처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어 “광주 미래차 산단은 빛그린 산단과 연계해 전후방 산업기반 강화, 글로벌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일류 미래차 생산거점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광주 전체 제조업 매출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춘 도시가 광주”라면서 “엔지니어링 5개사 유치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미래차 부품 산업으로의 전환, 부품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실증, 인증센터 등과 연계하면 미래차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고



27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광주시 균형발전 현안 회의를 마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자,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미래차 산단과 연계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 조성도 주요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조성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광주시와 함께 전방·일신방직 개발 부지에서 ‘광주 미래차 국가 산단 조기 조성 및 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회의’를 열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복합소방물 입점, 방직공장터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광천사거리를 비롯해 풍암교차로, 문화사거리 등 상습 혼잡도로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국가계획에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반영해 우회 도로망을 개설,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대구 달빛 고속철도 도심 구간 14km 지하화도 건의했다. 달빛 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대통령 공약이지만, 이용인구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이 도심 지상을 가로지르도록 계획돼 도심 단절, 지역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광주역~광주송정역 서철 열차의 코레일 직영, KTX 열차 증량, 배차 횟수 증편과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 대상지를 그린벨트 광역권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광주시는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 도심 융합 특구 근거법 제정, KTX 투자 선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중형 세대 공급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한 축은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으로 대한민국 제1의 모빌리티 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다른 한 축은 복합소방물을 통한 화재대응에 기반한 도시가 될 것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인 만큼 국토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래차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미래차 생태계 확장의 엔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광주 발전을 돕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북한, ‘美 핵항모 반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출몰한 27일 한미 연합상륙훈련이 진행 중인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47분께부터 8시께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7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

도 길주 앞바다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기종은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사일을 발사한 중화는 평양의 남쪽에 인접한 곳으로, 작년 말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 활용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운영 최종 확정

연구원 전남이 승계·광주는 신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해 운영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나주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연구원 전남 승계 및 광주 법인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이사 19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이사회에서는 모두 17명이 분리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이 이뤄지는데 따라 전남의 경우 기존 연구를 그대로 승계·운영하고, 광주는 별도 연구원을 신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분리된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도 같은 방식으로 분리 절차를 밟아 경북은 승계해 운영하고 대구가 정책연구원을 별도로 신설한 바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으며, 2015년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돼 현 체제를 갖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장기화’ ▶2면

광주 진곡산단 공터 쓰레기로 몸살 ▶6면



곳모닝 예향-남도 오디세이 미로 '장성'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광역시

방문진료 * 방문맞춤운동

건강 지원

동행 지원

안전 지원

주거 편의

일시 보호

식사 지원

가사 지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에 돌봄을 더하다”

돌봄콜 1660-2642

* 병원동행 * 관공서 외출동행

* AI 안부확인 * ICT 활용 안전체크 * 안전생활환경

* 맞춤형 영양설계 * 영양음식 조리·배달

* 간담수리 * 대청소 * 방역·방충

* 시설 단기 입소 * 케어안심주택

* 봉사활동 * 신체활동 * 일상활동 * 방문목욕

돌봄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음직한 돌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돌봄을 연계하고

틈새는 광주+돌봄으로 메우고

위급할때 긴급돌봄이 출동합니다

2023년 4월 1일 시작됩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상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문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돌봄콜(1660-2642)

이용절차 신청 ▶ 현장방문 및 평가 ▶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 모니터링